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점
편집인
인쇄인
ISSN 1227-7053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e-mail: kfpa8769@chollian.net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TEL. 3673-2851~3
568-6651~2
FAX. 568-6653

[月刊] 第133號

THE FISHING PORT NEWS

1999年 1月 25日(月曜日) [1]

'99 항별 예산배정 조기발주 박차

계속투자 29개항에 1,015억원, 유지보강 21개항에 304억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계속투자 대상 29개 어항과 유지보

강 21개 어항에 대한 항별 예산배정을 마쳤다.

일반회계 계속투자대상 12개항 항별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명	총사업비	'98까지	'99배정	잔사업비
계	258,140	101,172	33,200	156,968
울도	10,897	5,934	1,800	4,963
풍남	19,957	9,009	3,000	10,948
초도	27,436	12,147	3,300	15,289
남도	21,630	9,565	2,800	12,065
구조라	8,747	3,173	1,500	5,574
삼덕	20,797	8,379	2,800	12,418
매물도	20,845	10,522	3,000	10,323
보옥	28,568	6,510	3,900	22,058
득암	28,525	7,881	3,300	20,644
구산	27,252	6,092	3,300	21,160
오산	24,005	8,371	3,500	15,634
대포	42,953	982	1,000	41,971
전장포	6,530	6,530	-	-
광암	12,951	5,219	-	7,732

일반회계 유지보강 21개항 항별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명	총사업비	'98까지	'99배정	잔사업비	비고
계	303,177	180,158	30,442	123,019	
덕적	7,456	286	600	7,170	
녹동	23,565	18,785	2,300	4,780	
국동	25,327	14,014	1,500	11,313	
안도	9,804	7,358	700	2,446	
정자	14,192	6,787	700	7,405	
거진	11,787	8,770	600	3,017	
아야진	8,132	7,712	420	420	'99완성
장호	10,666	5,831	4,835	4,835	'99완성
임원	11,392	439	1,000	10,953	
남애	7,302	3,592	700	3,710	
청산도	3,486	1,820	700	1,666	
서망	12,493	11,438	500	1,055	
어란진	7,071	5,071	1,000	2,000	
감포	26,757	8,767	2,587	17,990	
대진	13,227	7,934	2,400	5,293	
저동	36,888	23,904	2,700	12,984	
죽변	20,254	7,689	1,500	12,565	
대보	6,835	4,313	800	2,522	
모슬포	20,712	16,559	1,500	4,153	
신양	18,558	15,197	1,700	3,361	
오천	7,273	3,892	1,700	3,381	
어유정항 등 16개항	-	-	-	-	

농특회계 계속투자대상 17개항 항별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명	총사업비	'98까지	잔사업비	'99배정	비고
계	582,845	371,542	211,303	68,295	
대변	42,374	18,793	23,581	5,000	
시산	22,874	17,127	5,747	3,000	
지세포	34,448	21,465	12,983	3,600	
안복	38,278	21,788	16,490	5,000	
수산	42,664	22,209	20,455	5,000	
말도	14,775	11,468	3,307	3,307	'99완성
이청도	45,676	29,930	15,746	5,000	
소혹산	98,794	77,080	21,714	6,000	
사동	10,290	8,290	2,000	2,000	'99완성
여서	39,529	22,086	17,443	5,400	
수품	23,883	16,019	7,864	4,200	
축산	24,602	14,047	10,555	3,800	
현포	49,381	35,790	13,591	5,300	
김녕	17,198	13,959	3,239	3,239	'99완성
도두	19,075	17,415	1,660	1,660	'99완성
홍원	15,758	9,347	6,411	2,600	
모항	43,246	14,729	28,517	4,189	
물건항 등 2개항	-	-	-	-	

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어항시설사업 시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지난 한해가 가고 희망찬 199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항인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일익 번창과 평안이 내내 함께 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지난 한해는 정말 돌이켜 보기조차 싫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IMF 사태가 몰고온 충격은 18년만의 마이너스 성장과 적자재정편성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고조, 자산평가절하 등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한해였습니다.

다행히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강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한 결과 IMF 빚 29억불을 갚고도 470여억불의 가용외환보유고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수출 역시 400억불 흑자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는 늘 이렇게 장미빛 사진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수위에 따른 실업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외채이자, 그리고 낙관불허의 수출 등 곳곳에 잠재한 시한폭탄이 우리의 경제회생의지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난국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 국민은 이에 상응하는 법국민적 자각운동을 절실히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의 일환으로 강력한 개혁과 규제철폐 그리고 총체적인 왜곡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인 제2 건국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항인 모두에게 의식개혁을 위한 제2 건국운동 동참을 적극 권합니다. 제2 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기찬 부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운용방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생과 사명감을 발휘해 자발적이고 상향식의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법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새해에 우리 어항인에게 닥칠 도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해양분할의 신해양 질서와 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항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

의 노력과 의지가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방향을 좌우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상 주장해 왔듯이 새해에는 기필코 우리의 어항어촌이 선진어항어촌으로 종합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슬기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산예산의 구조를 수산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처럼 어항부문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어항예산을 단계적으로 수산예산의 6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나눠먹기식 예산구조로는 수산업의 기반구축이 될 어항개발은 요원한 길이 될 뿐입니다.

또한 어항어촌건설에 따른 정책적 배려 역시 절실히 설정입니다. 특히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 성장과 실의 균형이란 측면 외에도 고용창출, 경기부양과 맞물리는 사항이므로 기필코 우리 어항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해 한국어항협회의 사업계획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21세기 어항어촌 발전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어항어촌개발을 위한 기술 발전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위임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항인의 총의 결집 및 충실했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이러한 과제는 많은 고통과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쉽게 성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백척간두에 올라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올 한해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어항인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한한 잠재력과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의 회생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힘을 모은다면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늘 어려운 상황에서 꽂이 됩니다. 그리하여 올 연말에는 우리 모두 난국극복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허리끈을 더욱 바짝 죄고 분발 매진합시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의 건투를 다시 한번 빌어마지 않으며 항상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국난극복에 어항인이 기수가 되자

동

정

일본 수산청장 예방, 양국 어업협력 당부



金善吉 海洋水产部长官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수산 해양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의 세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하자고 당부, 15일에는 나까스이사오 일본 수산청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어업협정이 조속히 발효되고 양국 어업인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13일에는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19일에는 자민련 정책위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 21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월5일 임원 및 본부 부서장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 12일에는 임협중앙회에서 개최된 농수축임협중앙회 회의에 참석, 19일에는 새어업인상 시상식을 갖고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EEZ 어업대책자문위원회에 참석.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6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및 관련단체 신년교례회에 참석, 13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긴급이사회에 참석, 19일에는 전남대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임시총회에 참석, 29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 제1차운영위원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월5일 사천 위생매립장 공사현장에 출장, 6일에는 해남양촌제 현장 및 무안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건설공제조합 광주전남 자문위원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8일 하정학술장학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2일 제주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을 주재.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월16일 삼천포공사현장에 출장.

신년하례회를 개최, 18일에는 건설공제조합 광주전남 자문위원회에 참석.

▲조남우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에는 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20일부터 23일 가지는 경영자총협회 신년세미나에 참석, 22일에는 한국농수축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월5일 사천 위생매립장 공사현장에 출장, 6일에는 해남양촌제 현장 및 무안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건설공제조합 광주전남 자문위원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8일 하정학술장학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2일 제주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을 주재.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월16일 삼천포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신년인사회

지난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수산 해양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

강릉 연곡 등 어촌 8곳 본격개발

내년까지 280억 투입 … 상반기 착공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0년까지 강릉시 연곡·사천진 등 전국 8개 어촌지역에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선계류시설 등 각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생산·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릉시 연곡·사천진을 비롯한 제주 성산·서부, 거제·사동 등 전국 8개 낙후지역을 신규 개발사업으로 선정, 오는 2000년까지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권역별 사업비 배정을 완료, 오는 3월까지 금년에 시행할 사업물량을 확정키로 했으며 상반기안으로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시설기본계획을 보

면 우선 강릉시 연곡·사천진의 경우 올해 국고지원금 8억7천만원을 들여 수산물판매장,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늦어도 5~6월까지는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또 충남지역에서는 태안군 내 3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진입도로, 선착장, 물양장 등을 연내 확충키로 하고 1·4분기 착공목표로 시설용 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경주, 영

덕, 울진 등 3개 시·군 중 1개 권역을 우선개발대상지로 선정, 오는 3월부터 시설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총 10개 권역에 대해 종합개발이 검토되고 있는 전남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총 5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충, 어선계류시설을

비롯한 특산물 가공, 활어횟집 등 각종 어업관련시설을 건설해 어가소득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제한적최저가’ 대상공사 78억원미만으로 확대시행

국제입찰대상 정부공사의 금액이 종전 58억3천만원 이상에서 78억원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한적최저가 철제와 지역의무공동도급대

상공사도 종전의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최저가

도급 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중순경 확정,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총 10개 권역에

대상으로 확장되는 계획이다.

제한적최저가는 78억원 미만 기준으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가 구분 시행되고 지역의무공동도급도 78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2월중순경 확정예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지역의무공동

도급 대상도 50억원 미만으로 줄여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공보관 강무현 △감사관 김성규 △국제협력관 박재영 △안전관리관 이용우 △해운선원국장 김종태 △항만정책국장 정윤기 △국립해양조사원장 김하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낙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성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종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안전항건설사무소장 이종천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장 양성직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 안국전, 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연 박원경 △국방대학원 입교 서종호 □과장급 전보 △비상계획단관 송예용 △해양방재담당관 정형택 △해양정책과장 최장현 △항만물류과장 정무석 △항만개발과장 이재완 △지도육성과장 황수철 △세종연구소 과연 김형남 △한국해양연구소 과연 나태균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교과장 김석진 △국립수산물검사소 분석과장 김영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송완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박규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이상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영조 △국제기구담당관 방기혁 △선박관리담당관 손재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장황호 △전라남도 과연 정봉섭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지희진 △연안계획과 임현철 △해운정책과 박용문 △지도육성과 황지영 △항로표지과 권혁동 △국립수산물검사소 정락희

▲국립수산진흥원 □국장급 전보 △동해수산연구소장 박차수 □서해수산연구소장 한

상복 □과장급 전보 △연근해자원과장 백철인 △생물공학과장 민광식 △적조생물과장 조용철 △어장환경과장 김진영 △동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 문영봉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자원과장 고태승 △남해수산연구소 어업자원과장 손송정 △남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 고창순

표장

▲한국어항협회 어항청소선 904호 선장 하용만씨는 구락 31일 경남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난 한해동안 통영시 관내 항포구 청소 및 국토대청결 운동과 관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주소변경

▲주식회사한영(사장 김한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3번지 삼안빌딩 5층으로 본사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442-1161 ~ 3, 3442-1165.

▲이동섭씨(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4번지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327동 1502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의미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사장 김재우)

■개인

▲정영재씨(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

2월중 어항청소선 운항계획

선명	어항901호	어항902호	어항903호
운항지역	군산연안	목포연안	녹동연안
운항일수	22~27(6일)	22~27(6일)	22~27(6일)
어항904호	어항905호	어항906호	어항907호
국동연안	통영연안	포항연안	주문진연안
22~27(6일)	25~27(3일)	24~27(4일)	22~27(6일)

재경부는 이에앞서 작년말에 국제입찰 등 각종 공공공사 입찰의 기준이 되는 정부고시금액을 SDR(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당 1천560원으로 결정, 금년부터 정부공사의 경우 500만 SDR기준 78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국제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월중순경 확정예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도 50억원 미만으로 줄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제입찰대상금

감리회사 설립제한 완화

책임감리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감리예산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50억원 이상철도, 항만, 교속도로, 지하철 등 22개 공사로 규정된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22개 공사로 축소토록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18년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하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업자도 졸업후 18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해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리회사의 설립제한을 완화해 특급감리원, 건설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건축분야 기술사 등 건설분야 종사자로 한정해온 감리회사 대표자격을 없애 누구나 감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침식사와 건강

충실하고 멋있는 하루위해
아침식사는 필수

아침시간이 바쁘다 보니 아침을 거르거나 서구에서처럼 커피만 마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 체중조절을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침식사는 생활의 활력소로 하루 중에 가장 중요 한 식사이다.

우리가 수면 중에 아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뇌와 근육 및 전신의 세포가 그 내부에서 비교적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0~500 칼로리 정도 즉, 가벼운 한끼 분의 식사에 해당되는 양이 수면중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밤사이에 소모된 에너지와 아침식사 후 점심까지 약 4~5시간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오전 중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아침식사를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은 아침식사를 한 사람보다 언제나 불충분한 하루의 음식물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대신 점심식사를 풍족하게 하거나, 점심도 간단히 한 경우에는 모자라는 분량을 저녁식사에서 충분히 보충한다고 해도 대개는 권장량의 영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

한편 부족한 양을 저녁에 한꺼번에 먹거나 사람에 따라서 밤참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아침에 식욕이 떨어져 세끼의 식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다시 밤참을 먹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같이 아침식사를 거름으로써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의 균형을 잃게될 뿐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 및 기타 소화장애를 초래하기 쉽다.

보통 아침식사는 1일 전체 영양필요량의 4분의 1내지 3분의 1을 공급하는 게 좋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칼로리 식을 한다면 영양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저칼로리라고 해서 채소나 버섯류 해조류 등으로 만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적당량의 단백질 식품, 지방식품, 당질식품을 한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즉 밥, 국, 김치는 5대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개 아침에 식욕이 떨어진 이유가 장이 둔화된 활동 때문이므로 일어나자마자 냉수나 찬우유를 마셔서 위장을 자극하거나 과일 주스 또는 요구르트도 좋다.

아침식사를 맛있게 하면 음식을 먹을 때의 예민한 감각으로 강렬한 자극을 주며 음식을 씹을 때 얼굴의 근육이 작용을 하면서 대뇌의 활기를 더해주어 우리의 아침을 상쾌하게 할 뿐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 그날 하루동안 충실히 멋있는 활동을 기약하게 해주는 것이다.

3.1.2 기초공의 공종

기초공에는 다음과 같은 각 공종이 있다.

방파제, 호안, 제방 및 계선안 기초공의 시공예를 그림 3.1.1~그림 3.1.3에 도시한다.

(1) 해저굴착공

지지지반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혹은 구조물 전면의 준설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정의 깊이 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는 공사이다.

(2) 치환사공

지반개량공법의 일종으로 준설선 등으로 연약토를 제거하고, 양질토로 치환시키는 공사이다.

(3) 사석공

기초공의 주요한 부분으로 하중을 받아 이것을 분산시켜서 기초지반으로 전달할 일적으로 사석을 투입하여 표면과 비탈면을 고르게 하는 공사이다.

(4) 피복 및 밀다짐공

기초사석이나 전면의 재래지반이 파랑이나 해류에 의하여 세굴되거나 산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량이 큰 돌이나 이형밀다짐블록 및 방파블록 등으로 덮는 공사이다.

본 장에서는 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이형밀다짐블록이나 방파블록에 대하여는 제7장 콘크리트블록공에서 기술한다.

(27) 第3章 基礎工

3.2 굴착공

3.2.1 개설

방파제나 계선안 등의 어항구조물을 축조할 경우의 기초는 대부분이 해저에 만들어 지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한다.

a 재래지반의 암반표면이 풍화 등으로 딱딱하지 않아 그대로는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b 전면에 준설계획이 있고 구조물 기초면 높이를 준설계획수심보다도 낮게 할 필요가 있을 때

c 지지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재래지반까지 굴착하고 치환공이나 사석기초를 실시할 때

굴착공사의 작업선에는 그레브준설선이 사용되는 일이 많다. 마무리 정밀도가 특별히 요구될 경우의 마무리 굴착이나 해저굴착폭이 좁아서 해저굴착토량이 적을 경우 등은 그림 3.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잠수부가 에어리프트(air lift)를 사용하여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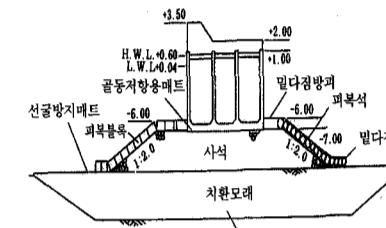


그림 3.1.1 방파제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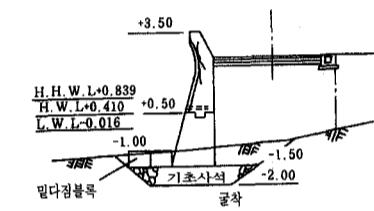


그림 3.1.2 호안, 제방의 기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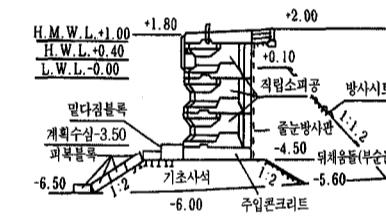


그림 3.1.3 계선안 기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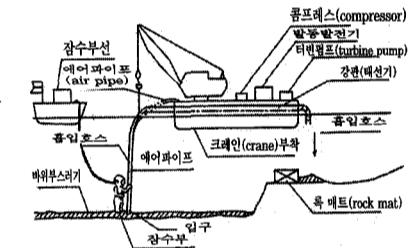


그림 3.2.1 에어리프트(air lift) 시공개념도

(3면에서 계속)

現 行	改 正	第41條(罰則)	第41條(罰則)
第33條의2(청문) 管理廳은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 또는 第29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3條의2(청문) 허가를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3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11條第4項의 规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告示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第11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許可·認可·免許·승인·同意 및 協議등(이하 “許可·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認可등의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3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1. 第12條第2項 但書의 规定에 의한 申告 없이 漁港施設의 補修·補強工事を 施行한 者	<削除>
1. (생 략)	-----	2. 第14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중지한 者	<削除>
2.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规定에 의한 占用 및 使用의 許可	-----	3. 第15條第2項 本文의 规定에 의한 申告 없이 他人으로 하여금 漁港施設事業을 代行하게 한 者	<削除>
3.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规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29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과의 協議 또는 승인 4. ~13. (생 략)	-----	4. (생 략)	4. (現行과 같음).
②第7條 내지 第11條의 规定에 의한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公有水面埋立法 第3條의2의 规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計劃을 수립하여 同法 第3條의4의 规定에 의하여 決定·告示한 것으로 본다.	-----	5. 第24條第3項 本文의 规定에 위반하여 竣工確認書證을 교부받기전에 土地나 施設을 사용하거나 同條同項 但書의 规定에 의한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한 者	5. 第24條第3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竣工전에 土地 또는 施設을 사용한 者
第40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6. (생 략)	6. (現行과 같음)
1. (생 략)	-----	7. 第43條(過怠料)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43條(過怠料) ①第25條第7項 後段의 规定에 위반하여 無償使用·收益期間을 초과하여 사용·收益하게 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의2. 第15條第2項 本文의 规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漁港施設事業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한 者	-----	8. 第14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申告없이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중지한 者	8. 第2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管理廳의 보고 또는 資料提出命令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5. (생 략)	-----	9. 第20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檢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9. 第25條第8項의 规定에 위반한 者
	-----	10. 第25條第7項의 规定에 의한 無償使用·收益期間을 초과하여 사용·收益하게 한 者	10. 第28條의2第2項의 规定에 의한 管理廳의 指示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報告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11. 第25條第8項의 规定에 위반한 者	11. ②~ ⑤ (現行과 같음)